

주점 시장 미래 트렌드



윤진원 소장 / 한국주류문화연구소

미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오늘이다. 광속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구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너무도 뻔한 명제다.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은 정치, 사회, 문화, 국민의 가치관 등이 복합적이고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실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모라토리움(Moratorium) 상황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10년 후 한국의 경제에 대한 의견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와 국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예상하는가 하면, 경제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죄악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외식업계를 포함한 주점업계 역시 매우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 당연하다.

일단 주류업계의 동향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저도주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된다. 소주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맥주 시장에 있어서는 생맥주 시장이 퇴조하고 병 맥주의 고급화, 다양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전통주류 명멸과 턱주 등 새로운 전통 주류의 도약, 위스키 시장의 퇴조, 와인 시장의 정착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동향과 가치관, 사회문화적 현상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하여 대중주점업계의 미래 트렌드 키워드를 일곱 가지로 정리하기로 한다.

하나, 매스티지

소득양극화 현상에 따라 가격파괴형, 서민형의 주점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반면 기업형 대형 주점과 매스티지 Massstige 형 주점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가격 파괴형 주점과 서민형의 주점이 계속 생겨났다 없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브랜드의 완성도를 높인 가치 지향의 실속형 매스티지 주점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술 한잔을 마시더라도 이왕이면 소비 대비 가치가 높은 주점에 소비자의 벌길이 찾아질 것이다.

둘, 다국적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한류 등의 영향으로 다국적 문화가 생겨날 전망이다.

미국풍의 웨스턴 바BARi 나 일본풍의 이자카야 풍의 주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이미지를 차용한 주점이 다양하게 시도되며 자리 잡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셋, 전통

월드컵과 한류 등, 세계화의 역풍으로 우리 것 우리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확립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저질 민속주점을 뛰어 넘는 전통 지향의 중·고가 전통문화 주

점이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 여성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2%. 여성의 힘이 커짐에 따라 여성 중심, 여성성이 내재된 매장이 늘어나며 여성 마케팅이 강화 될 것이다. 여성의 음주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여성 중심·여성주도의 음주와 회식 문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 명백하다.

다섯, 웰빙

사회경기에 상관없이 웰빙 Well-Being 은 생활양식으로까지 정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웰빙형 주점과 웰빙 마케팅이 폭발적으로 신장할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이왕 술을 마시더라도 몸에 좋은 술, 몸에 좋은 안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여섯, 문화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Aural 를 갖는 매장이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를 모을 것이다. 주점에 있어 역시 문화적 상징성을 담보한 매장이 경쟁력을 갖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결과 속이 비슷비슷한 매장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일곱, 융합

단순한 퓨전을 넘어 포괄적 문화 융합형 매장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당구도 치고 온라인 게임도 하고, 족욕도 하고, 네일아트도 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매장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